
해외출장(노르웨이, 덴마크) 요약

부서 : 도시사회연구실

자료제공 : 이 해 속

작성일 : 2018년 12월 14일

게시요망일 : 2019년 00월 00일

제목 : [해외출장노트] 노르웨이, 덴마크 방과후돌봄 사례조사를 위한 운영 기관 및 자치단체 현장 방문

※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,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
1. 출장목적

- 수탁과제인 ‘가용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 마련 연구’와 관련하여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식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, 수집하여 우리나라 초등학생 돌봄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데 벤치마킹 사례로 연구에 활용·반영하고자 함.
- OECD Family Database에 근거하여 방과후돌봄 참여 규모가 많은 북유럽 지역의 덴마크, 노르웨이를 방문함.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방과후돌봄 기관 및 시설,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해 관계자와의 면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함.

2. 기관 사례 조사

1) 덴마크 애프터스쿨: Bavnehøj Skole¹⁾

○ 개요

- 덴마크는 1980년대부터 6~12세를 대상으로 애프터스쿨을 진행. 학교밖에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하나,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진행
- Bavnehøj Skole학교는 전체 학생의 절반 가까이 애프터스쿨에 참여(약 400여명의 학생 중 200명 정도)
- 학기 중 일과는 6시15분~16시30분, 방학 중 일과는 7시15분~16시30분으로, 1년 54주 중 50주를 운영함.
- 학생의 출결은 정규수업 전과 오후시간에 키오스크를 통해 학생이 직접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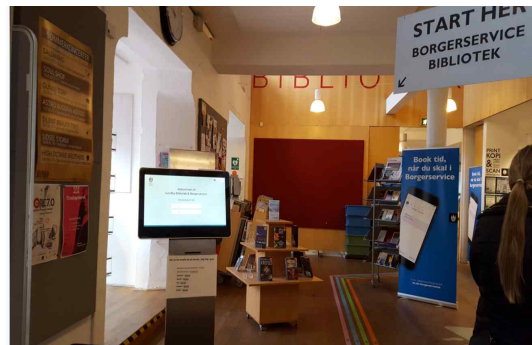
1) <http://bav.skoleporten.dk/sp>

○ 주요 프로그램과 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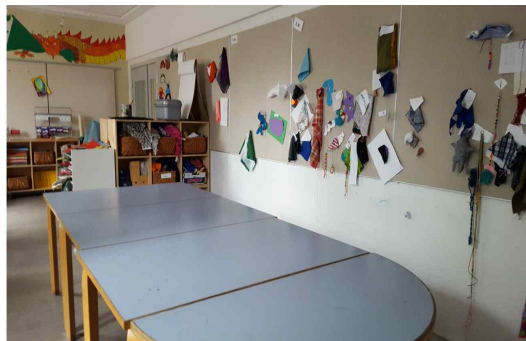
- 주요 프로그램은 언어, 운동, 사회성 신장, 읽기, 숙제지도 등이며, 가급적 운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.
- 프로그램은 전담교사가 모두 진행함.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의 인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나, 다른 기관 (박물관, 도서관, 대학 등)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실시
- 학생별 3.3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며, 학교 건물과 별도로 방과후 공간을 구비하여 별도로 운영
- 이용료는 학부모의 수입에 차등을 두며 약 18~20만 원 정도임. 지방자치단체(교문)에서 재정 지원 시 학교로 지급하며, 이민자 또는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는 더 많이 지원
- 2주마다 방과후 리더와의 회의를 진행하고, 1년에 한번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.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피드백을 줌.



<사진 1. Bavnehøj Skole학교 전경>



<사진 2. 출결 키오스크>



<사진 3. 학교 활동실>

2) 노르웨이 오슬로시청: Oslo kommune²⁾

○ 개요

- 노르웨이는 1999년부터 모든 학교에 애프터스쿨을 의무화. 자치주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나, 오슬로는 다른 지역보다 커리큘럼에 엄격하여 ‘액티비티 스쿨’이라고 명칭
- 초창기 방과후프로그램은 각 행정조직에서 담당하여 질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았고 이에 학부모들의 건의와 청원이 있

2) <https://www.oslo.kommune.no/startpage/>

따라 학교가 방과후프로그램을 담당. 2007년부터 각 학교장이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책임짐.

- 액티비티 내용은 수업 내용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, “놀이를 통한 연장교육(over learning, extra learning)”으로 교실이 아닌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핵심. 목표 전환 이후 학교 내에 액티비티스쿨을 관리·운영하기 위한 기관을 오슬로시 교육청 내 신설함.

○ 정책 지원 및 운영방식 가이드라인

- 오슬로의 공립 107개교, 사립 4개교의 6~12세 아동 대상, 오슬로시 아동 60%이상이 액티비티스쿨에 참여
 - 2개 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, 나머지 학교는 오슬로시에서 지원. 오슬로시는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약 500만 크로네(약 6만6천 원)을 지원함. 1인당 주 12시간으로 제한 지원하며, Full time 이용 시 추가비용 지불
 - 초창기 지원 대상은 소외계층 중심이었고, 점차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중임
- 액티비티스쿨은 학교 내 시설을 이용하는데 오래된 건물, 운동장 등을 활동공간으로 이용
 - 학기 중에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휴일에는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편
 - 대부분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편임
 - 학교에 위치하여 정규 수업교사와 액티비티 교사간의 협력 및 프로그램 논의도 수월하게 진행 가능
-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 1명의 액티비티스쿨 리더와 학년별 그룹리더, 어시스턴트가 상주
 - 아이 24명당 1명의 풀타임 교사가 배정되며, 프로그램 운영까지 모두 진행
 - 외부강사는 쓰지 않으며, 교사 채용시 어떤 특기와 능력(수학, 음악, 언어, 과학, 체육 등)이 있는지 확인
 - 학생 24명에 1명의 어시스턴트가 필요. 보조교사도 학력 제한은 없고 대부분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을 고용
 - 교사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지난 5월부터 액티비티스쿨 리더(애프터스쿨 책임자, 운영자)는 교육학(pedagogy) 학위를 받은 자여야 하며, 액티비티스쿨의 그룹리더(학년담당자)는 교육학 전공자일 필요는 없으며, 교육관련 또는 스포츠, 미술 등 전공. 교문에서 애프터스쿨의 리더, 그룹리더, 어시스턴트를 위한 교육도 지원하며 반응이 좋은 편임

3) 노르웨이 액티비티스쿨: Grünerløkka skole³⁾

○ 개요

- Grünerløkka skole 학교는 전체 550명 학생 중 약 300명의 학생이 참여
- 교사는 총 25명이며, 외부 강사를 활용
- 운영시간은 방과 전 7시부터. 방과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, 방학중 7~8시까지 운영. 토요일, 공휴일은 휴무. 학교 방학시기인 7월에는 1달간 미운영

3) <https://grunerlokka.osloskolen.no>

○ 주요 프로그램과 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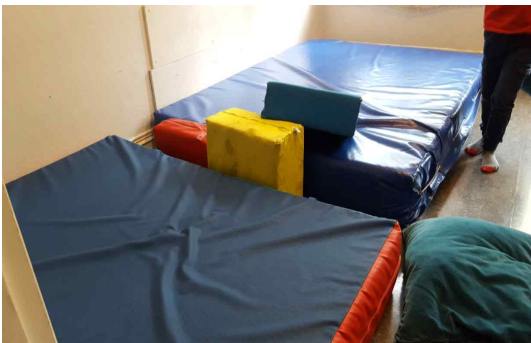
- 주로 애프터스쿨 건물을 활용. 확실치 않으나 15개 이상의 교실이 있으며, 학교 본관 이외에도 주변의 스케이트장, 레슬링장, 테니스장, 하키 장 등 외부시설을 이용
- 매일 급간식 제공함.
- 액티비티 비용은 프로그램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.
 - 1~2학년의 경우 기본시간 이용시 무료, 그 외 프로그램 이용시 프로그램 별 약 300KR(약 3만9천 원) 학부모 부담, 3~4학년은 기본 시간 외 이용시 약 1,000KR(약 13만2천 원)
 - 식사 및 프로그램 관련 비용이 이용료에 포함됨.
- 프로그램 방향과 관련하여 최근 Learning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. 이에 따라 퍼즐을 통한 수학, 창의수업 등 프로그램을 진행중
- 프로그램 일정은 대체로 간식 → 수업(퍼즐을 통한 수학, 퍼즐게임 등) → 선택활동(수영, 체스, 레슬링) → 귀가 순



<사진 4. Grünerløkka skole 학교 전경>



<사진 5. 액티비티 활동실>



<사진 6. 액티비티 활동실>



<사진 7. 액티비티 활동실>

자료제공 및 문의처 :
도시사회연구실 이해숙 연구위원(2149-1265)